간호에 대한 '좋은 경험' 갖도록 만들어야

환자의 문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출발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 간호에 대한 좋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한종양간호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환자경험에 대해 강연한 최정윤 GROW E&C 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최정윤 대표는 "간호사에게는 병원이 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곳이지만 환자에게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곳"이라면서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서비스에 있어서 환자와의 '공감'을 강조했다. "환자경험 중심의 간호서비스는 공감을 통해 환자의 문제해결과 정서지지를 제공해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 중 간호에 대한 좋은 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감은 감정이입이나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능력이자 정서적 반응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입장과 문제를 공감하기 위해선 관찰하고, 질문하고, 환자 입장에서 체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환자가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대표는 "환자는 질병이 치료된 방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돌보아진 방식을 갖고 의료서비스와 병원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경험의 경우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면서 "매뉴얼에 의한 응대가 아니라 유연성을 길러 스스로 감정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병원에서 힘든 경험을 한 환자에게 '고생하셨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달라' 등과 같이 말해주면 좋은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쌓이는 감동 포인트(choke-point)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환자경험' 평가 2017년 첫 실시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나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를 2017년 처음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공개됐다.

첫 평가결과 '간호사 서비스' 영역 4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88.8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보면 △존중/예의=89.9점(1위) △경청=89.3점(2위) △병원생활 설명=87.3점(7위)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88.9점(3위)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은 전체 6개 영역, 21개 문항 중에서 해당 간호사 서비스가 차지한 순위다. 즉 평가영역 전체 문항 중 점수가 높은 1, 2, 3위를 모두 '간호사 서비스'가 차지했다.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심평원에서 2019년 5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곳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보험적용 확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2월 1일부터 전면 확대됐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진숙 기자 jslee@

울산시간호사회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확대' 간담회

울산시간호사회(회장 이경리)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1월 31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국회의원과 백운찬 수석대변인, 울산시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증가하고 있는 간호 수요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경리 울산시간호사회장이 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보건간호사의 업무 영역 및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무거연세병원 박미경 간호부장(울산시간호사회 감사)이 '요양병원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백정애건강실버타운 백정애 대표가 '방문, 노인 재가 간호 활성화 방안', 울산병원 김장년 부원장(울산시간호사회 이사)이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인력 충원 및 처우'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충원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 없는 이유 '막연한 두려움' 때문

국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 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에 대해선 응답자의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대혈 기증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제대혈 기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는 2018년 기준 4497명이며, 기증희망등록자는 약 34만명이다. 이식을 위해서는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이식대기자가 조속히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증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후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의사를 확인한 후 기증이 이뤄진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프로그램 탑재'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탑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이수 인정시간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간호 Ⅰ	4시간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간호 Ⅱ	4시간
간호사를 위한 임상해부생리 Ⅰ	4시간
간호사를 위한 임상해부생리 Ⅱ	4시간
하루만에 끝내는 임상간호연구방법 Ⅰ	4시간
하루만에 끝내는 임상간호연구방법 Ⅱ	4시간
간호전산시스템의 이해	4시간
뇌사자 장기기증간호와 윤리(필수과목포함)	4시간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재활간호사과정 교육생 모집

오정옥피부재활센터 임상연구소&아카데미(소장 오정옥)에서 '2020년 피부재활간호사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화상 및 당뇨, 욕창, 임파부종 등 피부병변의 이해 및 상처간호, 피부재활간호요법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피부재활간호사 양성과정이다. 간호사인 오정옥 소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직접 교육한다.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대상. 교육기간 3월 25일~7월 8일,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총 160시간 과정(실기 64시간 포함). 수강료 360만원.

문의 02)552-7701. 홈페이지(ojosrc.com) 참조.

오정옥피부재활센터(임상연구소)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다. 오정옥 원장은 피부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피부재활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마사지에 아로마요법, 경락, 림프순환 등을 결합시킨 독창적인 'OJO method'(오정옥 방식 피부재활간호요법)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오정옥 원장이 직접 개발한 요법으로, 화상 또는 사고로 인한 창상 등의 피부손상환자의 피부장애 개선과 기능회복 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오정옥 원장은 피부재활간호요법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해외학회에서 발표해 주목받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를 직접 듣는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3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mogef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 벤처기업 인증기업 / 경영혁신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 /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좋은콘텐츠제공 서비스 품질인증기업